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기술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는 다양한 글이나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찾아보고, 글이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이 담긴 부분입니다.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며,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의 특징 및 실현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맥락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의 특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 ② 주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주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대상을,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 ④ 상대 높임 표현은 상황이나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 ⑤ 주체 높임 표현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2. <보기>의 밑줄 친 표현에 사용된 높임 표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은 조사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②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③ ㉢은 주격 조사를 사용하여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 ④ ㉣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 ⑤ ㉤은 청자를 높이는 종결 표현이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다.

3.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오늘따라 할아버지께서 음식을 많이 잡수신다.
㉡ 선생님의 따님은 정말 미인이시네요.
㉢ 할머니께서 오늘도 우리 집에 오셨다.

- ① ㉠으로 보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으로 보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 ③ ㉠으로 보아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으로 보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일 수 있다.
- ⑤ ㉢으로 보아 주어를 높이는 조사를 통해 서술의 주체를 높일 수 있다.

- ④ ㉠ 나에게 주오.
- ㉡ 많이 먹지 마.
- ⑤ ㉠ 나에게 줘라.
- ㉡ 저에게 줘요.

4. <보기>의 밑줄 친 대상을 ‘아버지’로 바꾼 높임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러 집으로 갔다.

- ①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
- ②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
- ③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주러 집으로 갔다.
- ④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간다.
- ⑤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가겠다.

5. 상대 높임 표현을 <보기>와 같이 나눈다고 할 때, ㉠과 ㉡에 포함되는 예시로 적절한 것은?

<보기>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보십시오	해요체	보아요
㉠하오체	보오		
하게체	보게	㉡해체	보아
해라체	보라		

- ① ㉠ 어서 오십시오.
- ㉡ 질문에 답하십시오.
- ② ㉠ 예약이 있으십니까?
- ㉡ 여기에 앉게.
- ③ ㉠ 멈추지 마라.
- ㉡ 저에게 주십시오.

6.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나)

상대 높임 표현은 동일한 화자가 동일한 청자에게 말을 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된다. 위 예시의 경우 (㉠).

- ① (가)와 (나)는 모두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② (가)는 사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를, (나)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한 것이다.
- ③ (가)는 해요체를 (나)는 하오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하게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⑤ (가)는 상대를 높이고 있고, (나)는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7.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등이 있다.

- 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 오셨다.
- ② 어머니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가셨다.
- ③ 나는 학부모 총회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갔다.
- ④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 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다치셨다.

8. 시제와 동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나뉜다.
- ② 시제는 선어말 어미, 시간 부사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한다.
- ③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 ④ 시제와 동작상 모두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 ⑤ 완료상은 ‘-고 있다’로 표현하고, 진행상은 ‘-어(아) 버리다’로 표현한다.

9. 다음 중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지구에는 아주 먼 옛날 공룡이 살았었다. - 현재 시제
- ② 무릎이 시큰거리더니 정말 비가 왔다. - 과거 시제

- ③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 현재 시제
- ④ 지금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복잡하다. - 미래 시제
- ⑤ 도서관에서 나무가 공부하고 있더라. - 미래 시제

1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예전에는 친구들도 참 많았었다.
 ㉡ 하늘이 흐리더니 비가 왔다.
 ㉢ 10분 후면 친구가 방문하겠지?
 ㉣ 저기 문 좀 닫아주겠니?

- ① ㉠은 시간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사건시가 발화시를 앞선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두 개의 문장에서 각각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은 같은 시제이나 의미상 차이가 있다.
- ④ ㉢은 완곡의 의미를, ㉣은 추측의 의미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 드러낸다.
- ⑤ ㉢과 ㉣을 통해 같은 선어말 어미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보기>의 ㉠~㉣ 중 시제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 예전부터 ㉠보던 모습이야.
 · 일에 ㉡몰두하는 너의 모습은 참 멋있다.
 ·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12. 다음 중 문장에서 드러나는 동작상이 다른 하나는?

- ㉠ 나는 온종일 하늘을 보고 있다.
- ㉡ 동생이 내 초콜릿을 다 먹어 버렸다.
- ㉢ 따뜻한 봄이 서서히 오고 있다.
- ㉣ 새 시대가 밝아 온다.
- ㉤ 나무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13.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아닌 것은?

- ㉠ 쌓여가는 서류에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 ㉡ 길을 가던 새싹이는 도둑에게 금반지를 뺏겼다.
- ㉢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모아 버렸다.
- ㉣ 차례대로 합격자의 이름이 불렸다.
- ㉤ 문이 열리며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14.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치타가 귀엽고 예쁜 토끼를 잡았다.
- ㉡ 귀엽고 예쁜 토끼가 치타에게 잡혔다.

- ㉠ 명사 '치타'에 붙는 조사가 ㉠에서는 주격 조사였으나,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바뀌었다.
- ㉡ ㉠은 행위에 당한 대상이, ㉡은 행위를 한 주체가 강조된다.
- ㉢ 명사 '토끼'에 붙은 조사가 ㉠의 목적격 조사에서 ㉡의 주격 조사로 바뀌었다.
- ㉣ ㉠에서는 능동사가 ㉡에서는 피동사가 쓰였다.
- ㉤ ㉠에서는 접미사가 쓰이지 않았고, ㉡에서는 접미사가 쓰였다.

15. <보기>의 피동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노루가 큰 개에게 쫓긴다.
- ㉡ 아버지의 가방이 찢어졌다.
- ㉢ 구름에 달이 가려졌다.
-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감이 잡혔다.
- ㉤ 사람에게는 모두 잊혀질 권리가 있다.

- ㉠ ㉠과 ㉡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 ㉡ ㉡과 ㉢은 '-어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피동문이다.
- ㉢ ㉢과 ㉤은 피동 표현이 2개 쓰인 이중 피동문이다.
- ㉣ ㉠과 ㉢은 피동의 유형은 달라도 하는 기능은 같다.
- ㉤ ㉠은 피동 접미사 '-기-'가 쓰였으며, ㉡은 피동 접미사 '-히-'가 쓰였다.

16. <보기>의 표제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일 년 새 문화재 10% 훼손돼……방대책은?

- ㉠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 ㉡ 문화재를 훼손한 주체를 강조할 수 있다.
- ㉢ 훼손된 문화재를 강조할 수 있다.
- ㉣ 문제의 원인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 문화재를 훼손한 주체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

17.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쓰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다.
- ㉡ 타인의 말과 글을 직접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쓴다.

- ③ 타인의 말이나 글을 간접 인용할 때는 작은따옴표와 조사 ‘고’를 쓴다.
- ④ 인용 표현을 통해 전문적인 내용이나 전문가의 말을 제시하면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종결 어미 등이 달라질 수 있다.

18. <보기>의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무가 나에게 자기랑 공부하러 가자고 했다.

- ① 나무가 나에게 “나랑 공부하러 가자”라고 했다.
- ② 나무가 나에게 “자기랑 공부하러 가자”라고 했다.
- ③ 나무가 나에게 나랑 공부하러 가자라고 했다.
- ④ 나무가 나에게 자기랑 공부하러 가자고 했다.
- ⑤ 나무가 나에게 “나랑 공부하러 가자”고 했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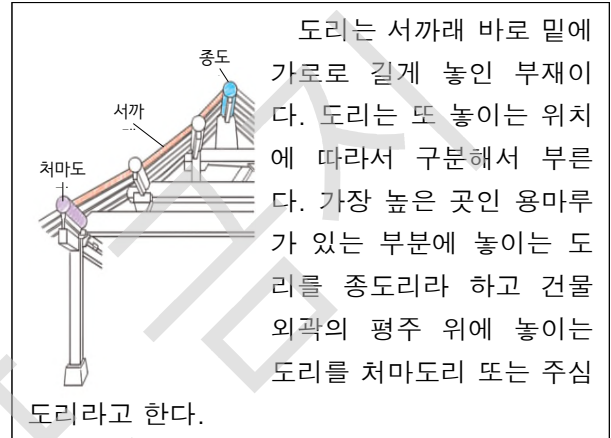
어휘 선택에는 화제에 관한 화자나 글쓴이의 입장과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

A	B
○○에서 약탈한 문화재 환수해 	○○에서 보관하던 문화재 인도받아 

Ⓐ와 Ⓑ는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는 ‘약탈하다’와 ‘환수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빼앗겼던 문화재를 되찾아 온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 Ⓑ는 ‘보관하다’와 ‘인도받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

한편 의미가 유사한 단어라도 어종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유어인 ‘아버지’와 한자어인 ‘부친(父親)’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자어 ‘장신구(裝身具)’와 외래어인 ‘액세서리(accessory)’ 가운데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말이나 글이 주는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나)



전문어는 학문이나 직업 분야의 지식이 담겨 있는 어휘이다. 위에서 사용된 ‘도리’, ‘서까래’, ‘종도리’, ‘처마도리’ 등은 건축 분야의 전문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어는 특정한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같은 분야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 사고 도구어는 전문어와 달리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위에서 사용된 ‘구분하다’는 사고 도구어로, ‘도리’와는 달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19. (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빼앗겼던 문화재를 다시 뺏어 온다
- ② 주지 않던 문화재를 강제로 찾아온다
- ③ 상대가 말아서 관리하던 사물을 넘겨받는다
- ④ 협상을 통해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온다
- ⑤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주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높임 표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자,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이다.

② 높임 표현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④ 상대 높임 표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⑤ 주체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 높임 대상의 소유물, 시간, 신체 등을 높이면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2. [정답] ④

㉠ '여쭙어보려'는 객체 높임 표현에서 사용하는 특수 어휘로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 '께서'는 주격 조사로 주어이자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② ㉢ '소개하신'은 '소개하-'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주체 높임 표현이다.

③ ㉣ '께'는 부사격 조사로 부사어이자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다.

⑤ ㉤은 청자를 낮추는 종결 표현이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다.

3. [정답] ②

㉞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따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생님의 가족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㉟은 '잡수시다'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

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㊱은 주체인 따님을 높이는 표현이나, 주격 조사 '께서'가 생략되고 보조사가 쓰였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④ ㊲은 '오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㊳은 '할머니' 뒤에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①

<보기>에서 '친구'를 '아버지'로 바꾸려면 먼저 부사격 조사 '에게'를 '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주다'라는 동사도 특수 어휘인 '드리다'로 바꾸어야 하므로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집으로 갔다.'가 적절하다.

② 부사격 조사를 '께'로 바꾸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③ 특수 어휘 '드리다'로 바꾸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부사격 조사와 특수 어휘 모두 사용하였으나, 시제를 현재와 미래로 바꾸어 적절하지 않다. 문제에서는 대상만 바꾸라고 하였으므로 시제가 변해서는 안 된다.

5. [정답] ④

㉡은 하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해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예시이다.

①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오체가 사용되었다.

②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계체가 사용되었다.

③ ㉡은 해라체가 사용되었고, ㉣은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⑤ ㉡은 해라체가 사용되었고, ㉣은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6. [정답] ②

(가)는 사적인 상황이므로 해체를 사용했다면, (나)는 공적인 상황이므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

이다.

- ① (가)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냈으나, (나)는 격식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는 해요체를 (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상대를 높이지 않았고, (나)는 상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①

-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였고,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인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인 객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 ②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인 주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인 객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 주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⑤

- 진행상은 ‘-고 있다’로 표현하고, 완료상은 ‘-어(아)버리다’로 표현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 ②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언어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어말 어미, 시간 부사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표현한다.
 - ③ 미래 시제는 말하는 시간인 발화시가 먼저 나타나고, 그 후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시가 나타나는 시제이다.
 - ④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

고, 동작상은 진행과 완료라는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9. [정답] ②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와 ‘-았-’이 사용되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되었다.
- ①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았었-’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③ ‘이번’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할’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④ 시간 부사어 ‘지금’과 기본형 ‘복잡하다’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⑤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10. [정답] ④

- ㉠과 ㉡ 모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며, ㉡은 완곡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시간 부사어 ‘예전’과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하늘이 흐리더니’와 ‘비가 왔다.’라는 두 문장이 쓰였으며, 선어말 어미 ‘-더-’와 ‘-았-’이 각각 쓰여 과거 시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과거 시제이다. 그러나 ㉠은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단절의 의미를, ㉡은 ‘-더-’를 사용하여 회상의 의미를 드러내므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사용되었으나 완곡이나, 추측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11. [정답] ③

- ㉠ ‘보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이다.
- ㉡ ‘열렸다’는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이다.

그러므로 ㉠과 ㉡은 같은 시제가 사용되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 ‘물두하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이다.

㉡ ‘하겠습니다’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이다.

①, ②, ④, ⑤ 모두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②

보조 용언 ‘-어(아) 버리다’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나머지 ‘-고 있다’와 ‘-어(아) 오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②만 동작상이 다른 문장이다.

①, ③, ④, ⑤ 모두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13. [정답] ③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모아 버렸다.’는 기본형 ‘버리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은 것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아니다.

① 동사 ‘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동사 ‘빠앗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동사 ‘부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⑤ 동사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②

㉠은 능동문이고 ㉡은 피동문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를 한 주체가 강조되고 ㉡은 행위를 당한 대상이 강조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는 ‘치타’에 주격 조사 ‘가’가 붙었으나, ㉡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는 ‘토끼’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었으나, ㉡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붙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⑤ ㉠의 ‘잡았다’는 접미사가 쓰이지 않은 능동사이고, ㉡의 ‘잡혔다’는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적절하다.

15. [정답] ③

㉠은 ‘잇- + -히- + -어지’가 결합된 이중 피동이지만, ㉡은 ‘가리- + -어지다’가 결합된 파생적 피동문으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① ㉠은 피동 접미사 ‘-기-’가 ㉡은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파생적 피동문이다.

② ㉠은 ‘쫓- + -어지다’가 결합되었고, ㉡은 ‘가리- + -어지다’가 결합되었으므로 통사적 피동문이다.

④ ㉠은 파생적 피동문이고, ㉡은 통사적 피동문으로 유형은 다르나, 둘 다 당한 대상이 강조되는 기능은 같다.

⑤ ㉠은 ‘쫓-’에 피동 접미사 ‘-기-’가, ㉡은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피동문이다.

16. [정답] ③

<보기>는 ‘훼손돼’라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피동 표현은 당한 대상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피동 표현과 신뢰성은 관련이 없다.

②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훼손된 문화재가 강조된다.

④ 피동 표현과 문제의 원인은 관련이 없다.

⑤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책임자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

17. [정답] ③

간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조사 ‘고’만 사용할 뿐 작은 따옴표는 쓰이지 않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인용 표현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와 쓰거나, 자신이 말로 바꾸어 쓰는 표현이다.

② 직접 인용은 타인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④ 전문가의 말이나 전문 지식의 내용을 인용하면 내용의 객관성이 높아진다.

⑤ 간접 인용은 타인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되므로 내용에 맞게 인칭 표현, 지시 표현, 종결 어미 등을 바꿔야 한다.

18. [정답] ①

<보기>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먼

저 인칭 표현인 ‘자기’를 ‘나’로 바꾸어야 하며, 큰따옴표를 넣고, 조사는 ‘고’에서 ‘라고’로 바꾸어야 하므로 ①이 적절하다.

② 인칭 표현이, ③ 큰따옴표가, ④ 인칭 표현과 큰따옴표와 조사가, ⑤ 조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19. [정답] ③

㉠에서 ‘보관하다’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라는 의미이고, ‘인도받다’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 것을 받아 온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은 이와 연관된 ‘상대가 맡아서 관리하던 사물을 넘겨받는다’가 적절하다.

①, ②, ④, ⑤ 모두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20. [정답] ③

‘분류하다’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사고 도구어이고, ‘도리’는 건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므로 두 단어의 어휘 종류는 다르다.

① ‘형성되다’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므로 사고 도구어이다.

② ‘분자’, ‘극성 분자’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④ (나)에서 전문어는 ‘특정한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같은 분야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전문어인 ‘무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⑤ ‘형성되다’와 ‘분류하다’는 사고 도구어이다. (나)에서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이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1. [정답] ③

㉠은 형용사 ‘예쁘다’에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④는 모두 선지의 설명이 적절하다.

⑤ 현재 시제의 경우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고 기본형으로 표현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22. [정답] ①

날씨를 풀리게 하는 주체는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동을 사용한다.

② 피동 표현은 행위를 하는 존재를 강조하지 못한다.

③ 피동 표현을 쓴다고 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④ 피동 표현은 내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지 못한다.

⑤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것은 피동 표현의 효과이지만 <보기>에서 제시된 사례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정답] ③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인 손님을 높이고 있으며,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손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와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은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은 주체, ㉡은 주체와 듣는 이, ㉢은 ‘객체’라고 제시한 ③이 적절하다.

①, ②, ④, ⑤ 모두 적절하지 않다.

24. [정답] ④

‘어제처럼 지각할 생각은 하지 마라.’는 해라체가 사용되었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순으로 높임의 정도가 낮아지므로 해라체를 사용한 ④가 적절하다.

①, ③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와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는 하오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자네, 여기에 좀 앉게나.’는 하게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25. [정답] ①

㉠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임을